

계율 정신대로 산다는 것은?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②

주제 : 상좌부 상가와 팔리울장 (8월 13일)
법주 :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 부파분열과 율장의 결집, 율장의 종류와 팔리울장, 상좌부 상가와 팔리울장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율은 범어 '실라'를 번역한 '계威'와 '비나이'를 번역한 '율(律)'의 합성어입니다. '계'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준수사항'이고 '율'은 삼가야 할 '금지사항'입니다. 계는 자율적인 것이고 율은 타율적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여러분들은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는 불자의 양심에 비추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율적인 '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율은 무엇인가?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

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범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율'과 같습니다.

율장결집이 이뤄지던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한 것을 초전법륜이라 합니다. 이때 최초의 불교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불교교단을 지칭하기 위해 '상가'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한자 '승가(僧家)'에는 승려, 승려의 모임이란 의미 밖에 없습니다. '상가'는 승가를 포함해서 승단, 고우 운영체제, 104 갈마법 같은 회의법 등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더 넓은 개념입니다.

상가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상가제도는 당시 인도의 통치제도 중 공화제에서 비롯했습니다. 공화제는 독재가 없습

니다. 그래서 상가는 전체의 공의를 모아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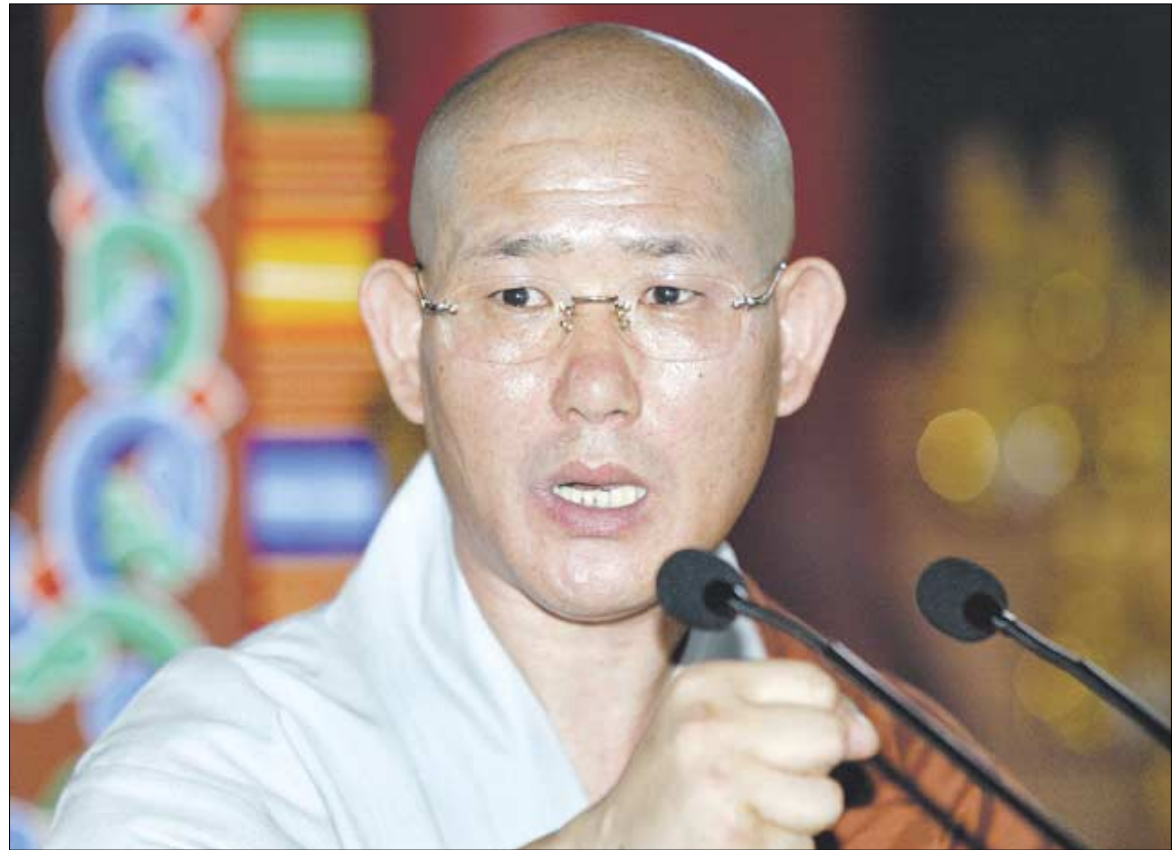
상가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평등'과 '무차별'입니다. 성직자인 '바라문' 뿐만 아니라 천민인 '수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상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는 평등한 교단, 개방된 교단을 기치로 걸고 화합된 승단으로 출발했습니다.

상가의 원칙 '평등'과 '무차별'

누구나 승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은 오늘날 상좌부 국가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태국이나 미얀마에는 사회생활을 마친 후 노년에 출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불교는 반대죠. 종현종법에 따라 마흔 살이 넘으면 출가를 못 합니다. 출가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는 평등교단입니다. 부처님이란 재가불자든 상가 안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불교는 사미 사미니들에게 노란 태를 두른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먼저 출가한 사람들의 폭거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어느 불교국가에서도 비구와 사미를 옷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남방불교의 율장에 의존해왔다." 마성 스님은 "이제 한국불교도 계율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교단 분열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율의 조항을 엄격하게 고수하려는 보수파와 계율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진보파의 대립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도 배살리에 살던 밧지족 스님들은 부처 입멸 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계율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지만 밧지족 스님들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밧지족 1만여 스님들이 따로 나가서 대중부를 구성했고 그들 나름의 율장을 제정했습니다. 남아있던 스님들이 상좌부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 스님이 갈등한 문제는 지금 보면 별게 아닙니다. 계율에는 음식저장을 일체 금지했는데 '소금은 좀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느냐'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밧지족 스님들은 탑수를 막기 위해 소금만은 가지고 다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결은 보수파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는 개혁을 할수록 좋지만 종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종교는 옛 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20가지 부파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20가지 부파는 각자의 율장을 제정했는데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것은 6가지 율장입니다.

'사분율' 등 다섯 가지 율장은 한역된 것이며 나머지가 '팔리울장'입니다.

'팔리울장'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집니다. 목차와 서론에 해당하는 '수타비방가(Sutta-vivanga)', 본문 내용인 '칸다카(Khandhaka)', 부록인 '빨리라와 라(Parivara)'가 그것입니다. 이중 칸다카 부분은 초기교단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칸다카는 교단의 제도와 규정 등 행정체계를 비롯해 출가방법, 포살법회, 자자법회, 비구가 아플 때 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 상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아도 정말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칸다카를 공부하다가 도무지 현실에 맞지 않은 계율을 여러 개 봤습니다. 그런 계율이 존재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현지가 살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문투성이 책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몇 년간 머리가 터져서 싸웠습니다.

상좌불교가 초기 교단의 원형을 유지한 이유는 왜가요? 칸다카에 지시된 대로 교단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율장은 '불제불개변(佛制不改變)'의 원칙에 따라 원형 보존이 잘 됐습니다. 경장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율장은 공동체

의 것입니다. 상가 공동체가 합의할 때 율장도 변화합니다. 율장 원칙에 따라 교단을 운영하다 보니 옛날 교단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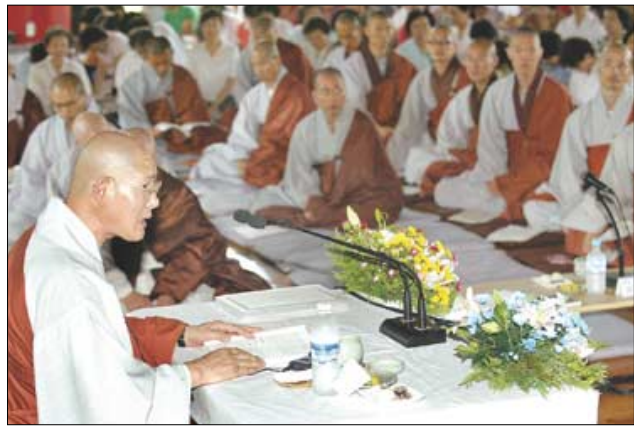
한국에도 '상가법' 도입해야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세시는 부처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율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불멸후에는 오로지 제정된 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다 보니 부처님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상좌부는 부처님 계율 정신으로 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율의 조문을 그대로 두면서 약간의 조작으로 부처님의 계율정신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하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법(淨法)'이 발달했습니다.

정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생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정법'입니다. 상좌부교단은 정법을 통해 새롭게 생긴 문

법회 동영상 중계 buddhanews.com



부처님의 청정계행을 배우겠다는 열기가 8월 13일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을 가득 채웠다.

달마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인체의 일수 없는 질병.... 수맥이 원인입니다. 수맥피해 /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수맥파를 차단하는 도형화백의 달마도가 막아 드립니다

▶ 기능보유

- KBS 수맥의 수수께끼 출연
- 수맥파 차단능력 달마그림 기능장
- 수맥탐사와 물의 기(氣)측정
- 주맥의 평면도로 수맥탐사
- 수맥파가 원인인 질병(불면증 등) 진단
- 기(氣)를 방출하는 휴대용 달마제작

▶ 수맥파의 피해

- 병원에서 모두 정상이라는데 늘 기운이 없고 아프며 우울증이 생기면서 밤에 잠이 안오고 꿈이 많을 때
-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는데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신경이 들고 머리가 찢뿌둥하고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 수혈생이나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이 머리가 산만하고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 신경약화로 불면증, 식욕부진, 두통, 신경과민, 조울증, 의욕상실, 권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모든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 별다른 이유없이 머리가 무겁고 아플 때

▶ 암환자 사는 곳의 90%가 수맥파가 있다.

달마상 보급운동 본부 TEL 042)623-6064, 042)636-7633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89-38 (우송대학교 정문, 광제사 밑)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화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